
第19回서울特別市議會(定例會) 交通委員會會議錄 第5號
서울特別市議會事務處

日時 2000年12月15日(金) 午後2時

場所 交通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1. 지하철6호선환승역동묘앞역(가칭)조기설치에관한청원
 2. 지하철건설본부업무보고의견
-

審査된案件

1. 지하철6호선환승역동묘앞역(가칭)조기설치에관한청원(李成浩議員 紹介) ... 2面
 2. 지하철건설본부업무보고의견 ... 16面
-

(14時 14分 開議)

○委員長 金喜甲;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정례회 제5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議事棒 3打)

오늘은 지하철 6호선이 개통된 역사적인 날이라고 하겠습니다. 지하철 2기 2단계 건설이 이제 완료됨으로써 지하철이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발전될 수 있는 계기와 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2기 2단계 개통이 있기까지 땀과 노력을 다하신 우리 지하철건설본부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치하드리는

바입니다.

다만, 약수역 등 4개 역이 무정차로 운행되고 있으며 개통한 역이라 하더라도 일부 역의 지하철 출입구 등 공사가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이 옥의 티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개통으로 나타난 문제점들을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이제 금년 업무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미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고, 지난 30여 년간 지금까지 지하철건설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내년에 있을 지하철 9호선 건설을 보다 튼튼하고 안전한 시설물이 건설될 수 있도록 내년도 업무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오늘은 가칭 지하철 6호선 환승역 동묘앞역 조기설치에 관한 청원을 심사하고, 이어서 지하철건설본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지하철6호선환승역동묘앞역(가칭)조기설치에관한청원(李成浩議員 紹介)

(14時 15分)

○委員長 金喜甲;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지하철 6호선 환승역인 가칭 동묘앞 역의 조기설치에 관한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議事棒 3打)

본 청원은 지하철 1호선과 6호선을 환승하기 위한 가칭 동묘앞 환승역 신설공사를 조기에 착공하고 조기에 완공해 줄 것과 건설 완료시까지 셔틀버스를 운행해 줄 것을 요망하는 청원입니다.

그러면 동 청원의 소개의원이신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종로구 출신 李成浩議員님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취지설명 및 청원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成浩議員;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종로구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李成浩議員입니다.

존경하는 金喜甲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통위원 여러분들 앞에서 청원소개를 하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저희 지역주민의 청원이 우리 위원님들께 잘 설명드려지고, 또 채택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 드리면서 청원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시지하철건설본부에서 6호선을 계획하면서 애초에 문제가 되고 있는 현재의 동묘앞역에는 환승통로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해서 주민들에게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양 최대의 환승통로가 될 것이라고 하는 설명까지 덧붙이면서 주민들은 기대에 부풀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난 9월에 신문, 방송보도를 통해서 동묘앞역, 가칭으로 설치하겠다는 일방적인 발표가 있었고 주민들이 알아본 결과, 환승역 설치계획이 변경되어서 5년 후에나 완공할 것이라는 답변을 듣고 우리 지역주민들이 분노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동 청원이 제출되었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은 창신1,2,3동 주민과 송인 1,2동 지역주민들입니다.

청원요지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조기 착공하고 또 조기 완공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 달라는 것과 이 공사기간 동안에 셔틀버스를 운행해 달라는 두 가지 요지입니다.

주민들은 청원인 李東奎 외 8,126명이 연대서명 해서

2000년 10월 24일 서울시장 및 지하철건설본부에 1차 진정서를 제출한 바도 있고요. 또 그에 대한 건설본부 답변이 있었고 또 설명회를 가진 바 있었습시다만, 별다른 진전이 없어서 오늘 다시 청원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제가 생각해 봐도 원래 계획되었던 환승통로를 지속하거나 아니면 이에 따른 문제점이 있거나 대안이 있다면 조기에 대책을 수립해서 6호선 개통시점에 맞추어서 이곳이 환승통로가 되었건 동묘앞역이 되었건 건설되었어야 옳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동안 뚜렷한 대책없이 차일피일 시간만 미루어 오다가 이제 완공시점에 이르러서야 동묘앞역을 새로 신설하겠다는 말은 주민의 한 사람, 시민의 한사람으로서도 분노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월드컵 경기장의 경우도 3년에 그 큰 규모의 경기장을 다 완공하기도 합니다.

서울시지하철건설본부의 의지만 있다면 5년이 아니라 3년, 4년에도 완공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역 주민이 그 동안 6호선 개통을 손꼽아 기다려 왔습니다.

특히나 창신1,2,3동, 송인1,2동 종로구민은 주로 종로통을 지나는 1호선을 이용하는 것이 주된 교통의 수단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1호선과 연결 안 된다는 사실에 창신1,2,3동이나 송인1,2동 주민에게는 지하철 6호선 개통이 큰 의미를 못 갖게 되는 그런 처지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동묘앞역으로 서울시 계획이 확정되었으니 만큼 이 계획이라도 조기에 착공되어서 현재 계획되어 있는

5년이 아니라 3년 내지 4년 안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의 청원입니다.

말하자면 이 청원의 취지는 그 동안에 소홀했던 점에 대한 질책이기도 하면서 앞으로 하겠다는 데에 대해서 채찍을 가 하자는 그런 취지의 청원인 만큼 우리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채택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청원소개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喜甲; 李成浩議員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宗植; 전문위원 金宗植입니다.

지하철 6호선 환승역 조기설치에 대한 청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報告)

지하철 6호선 환승역 동묘앞역(가칭) 조기설치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

이상으로 지하철 6호선 환승역 동묘앞역 조기설치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喜甲;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청원의 경우에 지금 이 지역의 주민대표 분들이 한 40여 분 방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풀뿌리 지방자치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그 지역의 구의회 의원이 여기 나와 있는데 李東奎議員 잠깐 나오셔서

보충해서 얘기하실 수 있는 내용을 짚막하게 3분 이내로 요점 위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鍾路區議員 李東奎; 존경하는 교통위원회 金喜甲 위원장님, 그리고 평소에 노고가 많으신 교통위원회 위원님들 여러분들께 정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의원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민행정위원장을 맡고 있는 李東奎議員입니다.

저한테 이런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무엇보다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간략하게 핵심만 몇 가지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서두에 李成浩議員님이나 전문위원님 설명이 계셨습니다만, 저희 지역주민들은 최초에 지하철공사 착공 당시에 6호선이 개통되면 동묘역을 만들어서 거기서 환승할 수 있도록 동대문과 연결시켜 주겠다는 그러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때 당시에 약속을 하실 때 무슨 약속을 해 주셨느냐 하면 동대문역 간의 거리가 약 400여 m 정도 나오는데 환승이 가능하겠느냐고 저희 지역주민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하철 관계자분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것은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역만 만들면 에스컬레이터 설치해서 동양 최대의 환승역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확언을 해 주셨습니다.

그 때 당시에 기술분야로 계셨던 분들 중에서 왔던 분들이 말씀하신 그 부분을 기억하면 유신코퍼레이션인가 하는 분들이 오셔서 동양 최대의 최고가는 환승역을 설치할 테니까 거리하고는 상관이 없다 하는 말씀을 분명히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걱정이 되어서 그것을 물었지요. 그리고 저희들은

다 되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 것도 모르고.

그랬는데 금년에 8월부터 신문에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더니 9월, 10월에 전격 동대문쪽으로 연결되는 환승역이 취소가 되고 1호선 동대문역과 신설동역 중간에 가칭 동묘역이라는 역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환승을 시켜 주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도 찬성을 했습니다.

그 동안에 그것 때문에 저희 지역주민들이 지역발전이 온다는 기대감 때문에 수많은 고통과 인내를 다 참고 지금까지 견뎌왔습니다. 분진에서 소음부터 여러분들 발파하는 과정 안보신 분들 모를 겁니다.

엄청난 고난과 역경을 다 디더가면서 지금까지 그것을 견뎌왔는데 이제 와서 완공이 며칠 안 남겨 놓고 갑자기 전격 발표를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지하철본부의 관계자 분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툰키방식으로 하시겠다, 그래서 툰키방식이 무엇인가 하고 검토를 해봤더니 툰키방식은 일괄발주해서 일괄착공과 완공까지 가는 과정을 툰키방식이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툰키방식이 과연 그러면 지금 착공한다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하고 지난 며칠 전에 저희들이 서울시 지하철 건설본부장님실로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더니 종로구 거기에 관계되는 의원님 세 분인가 네 분이 왔습니다.

왔더니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툰키방식은 약 5년 정도 걸린다, 그러면 5년이 걸린다면 상당한 시간을 저희들이 또 고통을 겪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지역주민들으로써는 완공이 돼서 오늘 드디어 개통을

보는 데까지 여태 지하철본부의 관련되어 있는 공사 관련자들은 무엇을 했으며, 왜 여태 공사를 하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턴키방식보다 더 빠른 방식이 없는가 하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제이알회사하고 남광토건에다가 저희가 물어봤습니다. 공기가 얼마 정도면 이 공사를 할 수 있느냐고 저희 대표들이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로 불러서 회의를 한 결과 1~1년 6개월을 앞당겨줄 수 있다는 확신을 받았습니다. 그런 방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금에 굳이 서울시 지하철본부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느 특정인에게 공사를 주면 오해받기 싫기 때문에 턴키방식으로 하시겠다는 말씀과 더불어 저희 지역주민이 1년 동안이면 얼마나 많은 불편을 겪는 것을 생각지도 않고 탁상공론만 하는 관계자들에게 저는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정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저희들 애환을 깊이 생각하셔서 다뤄주셨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에서 두서없이 몇 말씀 올렸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저를 이렇게 불러주시고 제가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내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委員長 金喜甲; 이동규 주민대표 고생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건에 대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지하철건설본부장 및 소개의원인 이성호의원을 상대로, 또한 李成浩議員 또한 질의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질의를 해주시고, 상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간결하고 짧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具哲會委員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具哲會 委員; 具哲會委員입니다.

먼저 지하철건설본부장으로 하여금 지금까지 경과를 일단 들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는데 그리고 나서 의심나는 것은 질문하는 것으로?

○委員長 金喜甲; 그러면 具哲會委員님이 질의를 해주시죠? 경과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얘기하시면 되죠.

○具哲會 委員; 具哲會委員입니다.

청원 건에 대해서 소개의원이나 주민대표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소개의원도 그렇고 주민대표도 그랬듯이 지금 상당기간 동안 흘러나올 때 우리 지하철건설본부에서 대처했던 상황이 있잖아요, 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것을 즉 설명을 일단 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또 모르는 것은 다시 질의를 할 테니까 일단 설명을 해주십시오.

○委員長 金喜甲;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崔昌植; 地下鐵建設本部長 崔昌植입니다.

오늘 청원이 제기된 안건의 가칭 동묘역에 관한 환승문제는 91년 6월에 6호선 기본 및 실시설계 당시, 당시에는 지금 건설하려고 하는 동묘역을 1호선 기 운행중인 지하철도의 가운데다가 역사를 만든다는 것은 국내 사례도 없고 여러 가지 기술적인 검토의 한계로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부득이 6호선하고 1호선하고의 환승의 필요성은 아주 절실하게 요구되기 때문에 1호선 동대문역하고

의 순간격은 370m, 역사 중심간격은 550m의 아주 먼 환승 통로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환승통로 공사를 착공할 97년 즈음에 이 문제에 대해서 또 심각하게 저희들이 다방면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이 환승통로에 대한 거리를 먼 이런 것을 무빙웨이라고 그러죠. 수평으로 움직이는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습니다만, 그래도 이것은 너무 멀다 어떻게 좋은 방법이 없느냐 하고 연구를 했고, 또 아울러 96년부터 동대문 주변에 밀리오레, 두타라든지, 거평프레야가 들어오면서 아주 교통이 심각하게 혼잡했습니다.

이런 것 관련해서 이 공사를 했을 때에 과연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도시교통정책상임위원회에 심의를 한 결과, 6호선으로 신당4거리를 막고 또 이쪽 약수로를 우회할 수 있는 길을 점유하고 있는데 과연 동대문 왕산로까지 공사를 벌이면 도심 동서축이 왕산로, 왕십리길, 청계로 세 가지 뿐인데 거기에 2개를 막는 꼴이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것은 6호선에 공사가 완공될 단계에 착공하라고 해서 이 공사가 좀 보류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초에 공사 착공을 앞두고 과연 이 방법뿐이 없느냐라는 것을 고심을 하다가 최근에 분당선에서 심각하게 거론되었던 것이 기존 운행선의 역사를 건설하는 방법이 없느냐는 것을 아주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운행하는 기존역사에도 역 건설이 가능하다는 기술검토가 최근에 되었습니다.

그리고 종전까지는 운행중인 지하철이나 장래에 계획하는 지하철에도 역사 간격을 1km 내외로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그것을 너무 단축하면 효율이 떨어지고 해서 금기시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항이 최근 몇 년 동안 해외 사례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환승역인 경우에는 외국에도 300~500m까지도 가까운 거리가 있는 것으로 조사돼서 우리도 타당성 분석을 해 보니까 비록 1호선의 운행시간은 이 역을 하나 추가하므로 인해서 한 1분 20초가 늦어집니다.

그런 단점은 있지만 그 단점보다는 여기다 환승역을 할 경우에 6호선하고 1호선의 수송수요가 서로 상승되는 플러스 효과로 비할 때 그것은 극복이 가능하지 않느냐, 뿐만 아니라 여기 환승통로 하면 창신동 일대 역세권이 별도 없기 때문에 주민들로서는 추가로 역을 만들 경우에 그 주변의 역세권 개발이 촉진돼서 지역주민한테 훨씬 더 이로울 것이다라는 여러 가지 상승효과를 기대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역을 추가 건설하는 것으로 지하철공사하고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다만, 그러면 주민들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왜 그러면 91년 당시에 그런 아이디어를 내서 그것을 지금은 완공되었을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렇게 했었다라면 가장 바람직했을 텐데 당시에 저희들이 예측하는 것이나 우리의 판단기준 가지고 그것이 어려웠다는 것을 양해말씀드리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까지 그렇게 했다는 경위는 말씀드렸지만 앞으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빨리 주민들한테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느냐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들도 걱정을 하십니다만,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역이 환승이 돼야 6호선의 이용객들도 훨씬 편해지고 지역주민들도 편해질 것이다 해서 그 동안 고심 끝에 가장 빨리 입찰돼서 공사가 되는 것이 무슨 방식이냐

해서 우리 계약방식에 보통 보면 일반적인 경우에는 보통 착공하는 데 소요시간이 한 1년 이상이 걸립니다.

그래서 일괄입찰방식을 할 경우에는 계약기간에 착공기간이 좀 단축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최신티 이 제도가 생겼습니다만, frast tarking방식이라고 해서 실시설계가 완벽하게 끝나기 전에 먼저 착공하는 이 방식을 적용할 경우에는 상당히 기간이 단축되기 때문에 이 방식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지금 입찰안내서를 작성해서 1월중으로 공고를 해서 선정을 하면 내년 7월이면 시공자가 결정될 것으로 저희들이 전망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2005년경 저희들은 잠정적으로 7월까지도 가능하겠습디만, 늦어도 12월까지는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2005년 7월까지도 가능하다고 전망은 됩디만, 적어도 2005년 12월까지는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요.

그래서 이 공사에 대해서는 누구한테 맡기든 간에 관리문제나 업체의 역량에 따라 다소 달라지겠습디만, 제일 중요한 것은 착공할 수 있을 때까지 행정소요기간입니다.

이것이 문제지, 아까 얘기한 대로 기존업체에 시킬 경우에는 계약에 따른 소요기간이 단축되는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이가 얼마 안 됩니다. 3.4개월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공사비가 한 500억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써 기존업체한테 수의계약을 준다거나 아니면 설계변경을 한다는 것은 계약질서를 상당히 문란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3.4개월의 행정기간을 단축하는 것보다도 공사시행과정에서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서 최대한 공기를

단축하는 것이 저희들의 임무로 생각합니다.

세 번째, 셔틀버스운행에 대해서 사실 저희들도 주민들 얘기 나오기 전에 이것저것 고민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만, 여기가 약 거리가 한 1.5km를 보고 버스를 운행하는 것으로 보니까요.

셔틀버스를 이용할 때 약 8분 정도 소요되고 도보로 할 때도 한 8.9분 정도, 한 1분 정도 차이는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주변 여건이 굉장히 교통이 혼잡한 지역입니다.

과연 여기다 셔틀버스를 대고 2분 정도 최소한 기다리게 하면서 손님을 태워서 가게 해야 되는데 이것이 지역의 오히려 교통혼잡을 촉발할 우려가 있고, 또 다른 유사한 여건에도 예를 들어서 장래에 건설될 이런 환승역이라든지, 아니면 기존 환승역이 아주 길어서 불편한 지역에 대한 형평성에 대한 문제도 보다 심도 있게 비교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종합적으로 볼 때 셔틀버스를 움직인다는 것은 타당성이나 실효성이 아주 미약하다 해서 저희 계획에서 채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본부에서도 하루빨리 환승역을 건설해서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데 대해서는 저희도 절대적으로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具哲會 委員; 지금 집행부의 설명도 듣고, 소개의원, 또 주민대표 설명을 세 분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효율적이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한 후에 우리 위원회의 의사도출을 해서 처리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시면 의사진행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金喜甲; 저희 위원님들 의견조정을 할 수 있도록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議事棒 3打)

(14時 46分 會議中止)

(14時 54分 繼續開議)

○委員長 金喜甲;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議事棒 3打)

동 안건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끼리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끼리 의견을 모았던 내용에 대해서 저희 교통위원회 공식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하철 6호선이 91년도부터 설계되었던 당시에 동묘앞역이 설계되었다면 한 10년 정도를 당길 수 있고, 이번 6호선 개통되어짐과 동시에 같이 할 수 있었겠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약간의 아쉬움이 남는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적어도 도시정책심의위원회에 올라갔던 96년도부터라도 동논의 자체가 구체화되고 좀더 심도 있게 주민편의에 서서 입장이 접근되었다면 지금 2000년입니다. 앞으로 한 4,5년 있을 텐데, 올해 당장 그 역이 개통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동안 종로구의 주민들께 대단한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런 마음을 금치 않을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찌 되었든 지금 2000년입니다. 2000년 연말이고 내년도가 2001년입니다.

또한 내년도 2001년에도 착공이 2001년 7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기나 이런 것을 감안해 볼 때 과연 그때도 착공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찌되었든 주민들의 원에 따라서 조속한 시일 내에 동 공사가 착공되고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것이 다수 위원님들의 의견이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다만 셔틀버스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해 본 결과, 과연 셔틀버스가 현실적으로 필요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지역주민들의 사정이나 집행기관인 지하철건설본부에서 현장조사를 좀더 한 이후에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옳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동 질의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 간담회에서 첫 번째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본회의에 부의해서 조기 착공하고 조기 완공시킬 수 있는 그러한 공법을 검토하라는 것이 저희 위원회 의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셔틀버스에 대해서는 좀더 주민들의 의견과 집행부에서 심층 검토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자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본 청원에 대해서 이상의 간담회 결과를 위원님 전체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다 하므로 본 청원을 간담회 결과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事棒 3打)

.....

(參照)

지하철 6호선 환승역 동묘앞역(가칭) 조기설치에 관한 청원 요지서

(뒤에 실음)

.....
○委員長 金喜甲; 동 청원에 대해서 지역주민들, 그리고 李成浩議員을 비롯한 지역 주민 여러분들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전부 일어나서 나가 주시고요.

2. 地下鐵建設本部業務報告의件

(14時 56分)

○委員長 金喜甲;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지하철건설본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議事棒 3打)

그러면 지하철건설본부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崔昌植; 지하철건설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金喜甲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19회 정례회에서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는 2001년도 건설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그간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 덕분에 지하철 6호선을 무난하게 개통함으로써 지난 89년 12월에 착공한 제2기 지하철이 10여 년의 한 세대를 거쳐 대장정의 지하철 건설의 한 획을 긋는 역사적인 날이기도 합니다.

이제 2기 지하철이 모두 개통된 우리 서울은 본격적인 지

하철 중심의 대중교통시대가 열리게 되겠습니다.

오늘 이날이 오기까지 그 동안 건설과정에서 위원님들이 보여 주신 관심과 격려가 보다 정교하고 편리한 지하철을 건설하는 데 큰 힘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새해에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6호선 개통 후에 12시에서 12시 50분 사이에 마포구청 역사에 인접해 있는 연립주택 주민 약 30명이 선로를 점거해서 열차운행에 장애를 준 바 있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具哲會 委員; 의사진행발언입니다.

○委員長 金喜甲; 네.

○具哲會 委員; 저 具哲會委員입니다.

지금 우리 지하철건설본부는 지난번 예산 검토시에 대부분 업무보고와 병행해서 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지하철건설본부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를 하고 의심나는 것은 질문을 하실 위원 있으면 하고 답변도 좀더 내용이 충실한 서면으로 했으면 하는 의사진행발언을 드립니다.

○委員長 金喜甲; 지하철 6호선 개통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격려를 해 주시는 것 같은데 방금 사고났던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마저 마쳐 주세요.

○地下鐵建設本部長 崔昌植; 그래서 이 주민 30여명이 선로를 점거해서 12시 50분에 경찰에 의해서 선로에서 나와 있습니다만, 이 민원내용은 인접에 보면 상명연립이라고 30세대 되는 주택이 있습니다.

주택에 96년부터 민원이 발생되어서 피해된 건물을 보수해

달라는 요지로서 그 동안에 계속 협의가 있었고 복구과정에도 도로를 점거하고 한 2개월 정도 공사를 방해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에 저희가 그 동안에 협의한 보수안에 대해서 불응하고 불신을 하는 상황을 고려해서 주민들이 세 명의 전문가를 추천하고 저희가 3명의 전문가를 추천해서 6명의 전문가가 10월 13일에 현장에 출두해서 안전성 여부, 또는 피해의 범위, 보수방법과 규모, 보수비용을 심의한 결과 그 규모가 6,798만원에 상당하는 피해보수를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내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근거로 해서 보수 협의한 결과 3세대는 응해서 보수를 했습니다만, 대표자 윤태성 등 나머지 세대는 불응하고 피해액 플러스 정신적인 피해, 기타 위로금 포함해서 6억 3,000만원 정도의, 우리가 심의한 것보다 8 내지 10배의 비용을, 현금을 요구하기 때문에 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동향이 없었습니다만, 오늘 갑자기 12시에 이런 선로를 점거하는 사례가 발생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대화를 적극적으로 해서 민원이 빠른 시간 내에 종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喜甲; 민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위원장으로서 본부장께 촉구드립니다.

앞서 얘기했던 청원건이나 또한 지금 얘기되었던 선로를 점거하는 민원 같은 경우는 사실어떻게 보면 대단히 크게 지역주민들의 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 사안에 대해서 지나치지 마시고 지역주민 대표와 또 여기 관계자들을 반드시 배석시켜서 가급적이면 그 원

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崔昌植;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喜甲; 그리고 동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具哲會委員님이 제안하신 대로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회의록에는 서면대로 그대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參照)

地下鐵建設本部 主要業務報告

(뒤에 실음)

.....

○委員長 金喜甲; 그러면 지하철건설본부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괄 질의.일괄답변형식으로 하겠습니다.

具哲會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具哲會 委員; 具哲會委員입니다.

오늘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요, 개통하시느라고. 업무보고 7쪽에 보면 지하철 6호선 7공구 시공사 부도 퇴출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주셨는데 지금 이것은 대략적인 설명인 것 같아요. 항상 들은 이야기인데,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것, 그리고 지난 번에 우리 지하철건설본부장께서 예산을 통장에다 넣어서 일을 하는 대로 거기서 인출해서 뭐 해서 빠른시일 내에 공사를 완공하겠노라 하는 답변을 들은 지가 벌써 1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부분 개통이라는 미온적인, 아주 시원치 않은 개통을 하고 말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지금 오늘 답변하실 것이 아니라 서면으로 자세히 하셔서 답변을 부

탁드립니다.

그리고 8쪽에 2기 지하철 완공 기념행사, 그런데 기념행사를 11월 28일에 국제심포지엄 개최하는 것으로 끝난 겁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崔昌植; 끝났습니다.

○具哲會 委員;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다 하는 것을 지금 보고하신 거죠? 그리고 아까 본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했던 나머지 개통 안한 구간을 마저 개통하고 나면 또 무슨 행사를 하실 것인지, 그런 계획이 있으면 어떠한 계획이 있다든지, 그것은 물론 계획에 불과하겠지만 그런 계획도 서면으로 자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喜甲;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郁委員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郁 委員; 金東郁委員입니다.

오늘 아침에 개통상황을 보니까 참으로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관리하고, 정말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지하철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청원 건에 대해서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여쭙어 볼게요.

기존에 1호선 신설하고 동대문 사이에 역이 하나 신설된다는 거죠?

○地下鐵建設本部長 崔昌植; 네.

○金東郁 委員; 그런데 기존에 신설된 곳에다가 새로운 환승역을 한다는 것이 과거에 그런 해본 경험이 있나요?

○地下鐵建設本部長 崔昌植; 현재까지는 사례가 없습니다. 분당선에서 한 군데가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공되

지는 않았습시다.

○金東郁 委員; 분당선하고 여기하고 지역적 차이나 여러 가지 여건상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공법으로 이것을 실행하겠다는 것인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崔昌植; 저희가 그것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만, 그 동안에 다각적으로 검토한 결과, 우리 기술에 의해서 안전하게 시공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상당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기술력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金東郁 委員; 우리 기술인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崔昌植; 그렇습니다.

○金東郁 委員; 그러면 분당선은 지금 어느 지점에 하고 있는 거죠?

○地下鐵建設本部長 崔昌植; 이매역.

○金東郁 委員; 이매역? 얼마나 됐죠, 지금?

○地下鐵建設本部長 崔昌植; 금년에 착공했기 때문에 굴착 시작단계입니다.

○金東郁 委員; 이제 굴착 시작단계예요?

○地下鐵建設本部長 崔昌植; 네.

○金東郁 委員; 그런데 본부장님 굉장히 자신 있어 하는 것 보니까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 도심 한복판에 신기술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것을 새롭게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비전문가지만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본부장님 대안은 가지고 있습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崔昌植; 이 점에 대해서 한 5개월 동안 최종 결심하기 전에 기술검토를 다각도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것이 어렵기는 어렵습니다. 교통이 혼잡한 데서 1호선 지하철을 받쳐가면서 옆에서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역을 신설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어려워도 새로 역을 신설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金東郁 委員; 물론 좋은 여건이고 좋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민들한테도 편리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리라는 점은 알고 있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기존에 우리가 별문제가 없는 기술적 공법으로도 공사가 지연되거나 내지는 문제가 생기고, 사고가 발생하고 그러는데 한 번도 안 해 본 부분들에 대해서 실행하는 부분이 상당히 본위원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그리고 또 정밀하게 검토를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지적을 하면서, 도시철도박물관에 대해서 하나 서면으로 좀 답변해 주십시오.

60억 소요예산을 들여서 지금 하고 있는데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굳이 올해 이것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는 본위원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시작된 사업인 만큼 좀더 구체적으로 앞으로의 계획을 서면으로 작성을 해주시고, 앞으로 향후 진행과정까지도 같이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喜甲; 呂鼎九委員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呂鼎九 委員; 呂鼎九委員입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산업재해로 해서 123명이 사망을 한 것으로 유형별로 죽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피해액이 얼마나 되는지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喜甲; 鄭東一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東一 委員;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6호선 개통식 하시느라고 그 동안 노고에 감사드리고, 유감스럽지만 4개 역을 빼놓고 개통을 하게 된 데는 우리 시민들에게 볼 낮이 없습니다.

본부장님 약수동 로터리쪽 가보셨습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崔昌植; 네, 가봤습니다.

○鄭東一 委員; 거기 어제도 말씀드렸습시다만, 지금 너무 심각해요.

도로변에 보도블록도 없고 정리가 안 돼 있어서 행인들이 밤에 노약자들이나 어린애들은 많이 더 다치기도 하고, 또 차도에 노면이 너무 울퉁불퉁하게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최소한도로 해주고 뭘 개통하든지 해야지, 그 분들이 어떻게 인식을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신속히 처리해 주시기 바라구요.

또 오늘 지하철을 시승을 하고 삼각지에서 내렸는데 엘리베이터가 있더라고요. 엘리베이터를 보니까 미관상 좀더 아름답게 꾸밀 수가 없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기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다면 그것을 사용하게끔 해야 될 텐데, 엉뚱한 데가 있어서 사용 자체를 모르고 지나치는 분들이 많겠더라고요.

노약자나 이런 분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부녀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것을 활용해야 될 텐데 외판 데 있어서 어떠한 표시도 제대로 없고, 살펴 보니까 감시카메라는 하나 달려 있던데 효율적인 운영이 조금 의구심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철저히 잘 관리가 되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아까 具哲會委員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도업체를

어떻게 처리하며 또 거기에 2월말까지 4개 공구에는 완전히 해결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좀 서둘러서 어떠한 대책으로 할 것인지, 그냥 공문만 부도난 회사에다가 또 어떠한 보증회사에다가만 하는 것인지, 그 사람들을 실질적으로 만나서 회합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인지, 도대체 알지를 못하고 있으니깐 그런 부분도 확실하게 좀 서면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喜甲; 이상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지하철건설본부측이 성의 있는 서면답변을 작성해서 회의록에 반드시 기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하철건설본부의 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이것으로 우선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선 준비해 온 내용이 있습니까, 崔昌植 本部長?

○地下鐵建設本部長 崔昌植; 네.

○委員長 金喜甲; 어떤 내용입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崔昌植; 전에도 보고드린 바는 있습니다만, 지금 도시철도 지하철의 마크가 통일된 심볼마크하고 지하철공사 배지 달아놓고, 도시철도는 도시철도 배지 달고, 철도청은 철도청, 인천시는 인천, 심볼을요. 그렇게 하고 사인 폴이 너무 두껍고 지하에 있어서 광고나 붙이고 썩고 그런다는 여러 가지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동안에 여러 번 검토보고는 드렸습니다만, 우선 폴사인은 전에 우리 7호선 개통할 때, 지금 보시다시피 현행 폴사인은 맨 왼쪽에 있는 것이 지하철공사 것입니다.

두 번째 있는 것이 도시철도 5호선을 하면서 좀 너무 크고

둔탁하다 그래서 좀 사이즈를 줄인 것이고요.

세 번째 것이 철도청입니다. 수도권에 또 인천이 가세돼서 인천은 또 네 번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작년부터 올해까지 전문가의 용역과 저희 자체 검토, 그 동안의 회의를 거쳐서 이런 형태가 좋겠다, 그래서 좀 날씬하고 유지관리도 좋은 이런 형태로 해서 전번 7호선부터 이것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좀 결정을 최종적으로 유보했던 것이 이 심볼마크를 지금 저것은 각 기관 운영별로 자기 배지를 달았는데 이래서 안 되겠다 해서 이런 저번에 지금 이렇게 있는 이런 모양을 가지고 시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그때 위원님들 의견도 듣고 했습니다만, 결국은 가장 좋다는 것이 이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행정협의회에도 총론은 다 찬성했습니다. 인천, 부산광역시, 대전시까지도 총론은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동안에 확정을 유보했던 것은 건교부도 해야 되고 수도권만 통일할 것이 아니라, 전국이 일일생활권이 되니까 이것을 인식을 같이 해줘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어디든지 저 마크만 보면 아, 저것 보면 전철 타는구나 이렇게 요청을 했었는데 그 동안에 반응을 전혀 안 하기 때문에 6호선 이것 할 때는 이것을 통일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으로 지난주에 최종결심을 받아 수도권은 이것으로 통일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제히 갈아치우면 예산낭비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노후된 폴사인을 교체하면서 저런 심볼마크로 통일하는 것으로, 6호선 만큼은 이번에 전부 통일해서 갈겠습니다.

○具哲會 委員; 기존에 되어 있던 것은 단계적으로 하고.....

○地下鐵建設本部長 崔昌植; 네, 그렇습니다.

○委員長 金喜甲; 지금 610으로 나와 있어요. 저 번호가, 6호선이라는 것은 이해하겠는데 그 다음 것은 뭐예요?

○地下鐵建設本部長 崔昌植; 6호선 10번 역입니다.

○委員長 金喜甲; 그러니까 지금 여기 업무보고서 13페이지 보면 739라고 있어요.

○具哲會 委員; 7호선에 39번 역.

○地下鐵建設本部長 崔昌植; 그렇습니다.

○委員長 金喜甲;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시라고요. 뭐냐 하면 앞으로 안내 폴사인 할 때 참고해야 되는데, 지금 상도역에 출입구가 표시되어 있는 것이 3번 출입구가 그것입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崔昌植; 네.

○委員長 金喜甲; 그런데 3번 출입구가 밑에 있어 가지고, 아까 6호선 행사 끝나고 나와서 보니까 이것이 보이지 않아요. 왜냐 하면 우리가 대개 찾는 것은 어디 역에 몇 번 출입구, 이것을 굉장히 시민들이 많이 찾아요. 몇 번 출입구 나가서 만나자,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런 부분을 조금 아이디어를 내서 그것을 눈에 띄게 생각을 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具哲會 委員; 영문 상도하고 한글 상도 사이에 3번 게이트라는 것을 거기에 넣어 주면 어떠냐 이거예요.

○委員長 金喜甲; 게이트 번호가 전혀 안 보여요.

○地下鐵建設本部長 崔昌植; 그래서 아주 교통관리실에서 오랫동안 했는데.....

○委員長 金喜甲; 그것을 참고해서 해 주세요.

왜냐 하면 사실 739번은 7호선 39번째 역이든 아니든 중

요하지가 않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610번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문제는 뭐냐 하면 거기에 나와 있는 역 출입구 게이트가 몇 번이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몇 번 출입구에서 만나느냐 이것이.

그런 것도 좀 감안해서.....

○地下鐵建設本部長 崔昌植;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 서울 오래 산 사람은 상도하고 출입구 넘버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 것을 없애느냐 아니면 조그맣게 하느냐는 논란이 많았는데 외국인하고 지방에서 온 사람은 그래도 저 번호 보고 몇 번 역 찾아가고 그래서.....

○具哲會 委員; 지도책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놔두고 몇 번 게이트라는 것만 키워서 알아볼 수 있도록.....

○地下鐵建設本部長 崔昌植; 아무튼 이것은 연구해 보겠습니다.

○委員長 金喜甲;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 오늘 그래도 역사적인 지하철 6호선 개통을 하느라고 사실 오늘 지하철건설본부는 경사일입니다, 경축일이고, 본부 입장에서 본다면.

참 그 동안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고, 건설하느라고 애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오전행사 끝내고 오후에 여기까지 와서 계속해서 질의답변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매정한 처사가 아닌가 싶어서 서면질의, 서면답변으로 했다는 점하고.....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만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난번 회의 속기록에 보면 지하철 6호선 완공을 11월까지 끝내겠다는 얘기가 속기록에 대여섯 차례 지금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사실 시간에 대한 관념은 여러분들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가지고 어떤 위원님 도대체 지금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올해 끝내놓고 잘한 일이나 하고 따지겠다는 것도 제가 위원장으로서 무마를 시켰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시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 사정이야 다 있겠습니다만, 아까 얘기했던 대로 지역주민들이 피부로 느꼈을 때 시간에 대해서 앞으로 5년이라고 하는데, 제가 아까 화장실 가면서 잠깐 들은 얘기인데 5년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또 몇 년 뒤에 어떻게 될지 우리도 모른다 이거예요.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된다, 가급적이면 최대한 단축시키고 해서 조속한 시일 내로 착공하고 조속한 시일 내로 완공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강구해 주십시오하는 것을 끝으로 위원장으로서 부탁드리고, 6호선 행사 치르느라 오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또 추운 날씨에 지하철 6호선 개통행사에 참석해 주신 교통위원회 鄭東一委員님과 金東郁委員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5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議事棒 3打)

(15時 25分 散會)

○出席委員

金喜甲 朱世晩 趙成大 具哲會

金東郁 金聖泰 金鍾來 呂鼎九

林東奎 鄭東一 安秉昭

○委員外 出席議員

李成浩

○專門委員

金宗植

○出席公務員

地下鐵建設本部長 崔昌植

○其他參席者

鍾路區議員 李東奎